

민주 공천 파열음 적전 분열?

■ 丁-鄭 담판 결렬 제길 가나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의 24일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남에 따라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위기감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심각한 적전분열로 4·29 재보궐 선거에서의 완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정 전 장관 측이 끝내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경면 충돌한다면 민주당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입장자 확인한 회동=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전 장관은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통해 전주 대진 공천 문제를 놓고 담판했으나 서로의 '결단'을 촉구했을 뿐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상대로 정 대표는 재보선 승리를 위해 이번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백의종군해달라는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며 '선당후사(先黨後私)'를 거듭 강조했다는 후문이다. 또, '약체 소수 야당'으로서 겪고 있는 어려움도 토로하며 정 전 장관을 설득했다고 한다.

이에 정 전 장관은 "전주 덕진 출마와 함께 선대 위원장을 맡아 재보선을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최고위원회의의 '공천 불가' 입장에 맞서 "당원과 지지자의 의견을 지도부가 경청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회동은 양 측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다.

정 대표와 정 전 장관은 4·29 재보선을 앞두고 당의 분열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고자 주가 회동을 기약한 상황이나 양 측의 주장이 팽팽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미약한 상황이다.

◇ 무소속 출마 하나=이날 회동에서 확인했듯이 민주당 지도부가 '공천 불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정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정 전 장관의 전주 덕진 출마 의지가 워낙 완강하다는 점에서 당시 공천을 배제할 경우, 무소속 출마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정 전 장관의 '백의종군' 가능성을 제



4·29 재보선에서 전주 덕진 출마를 선언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이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 원기 전 국회의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출마 자체해 달라" VS "원내서 돋겠다"

鄭 무소속 출마엔 재보선 완패 가능성

기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백의종군은 민주당의 미래(대의)를 위한 혁생이라는 명분이 제공되기는 하나 정 전 장관의 정치력에 치명타를 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인천 부평을 카드는 이미 약효가 떨어졌다는 평가다. 철새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데도 당 지도부가 내세우는 개혁공천과 거리가 멀다. 정 전 장관 측은 인천 부평을 카드에 대해 '생각할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당 지도부가 지역 여론 등을 명분으로 전략적으로 정 전 장관을 전주 덕진에 공천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당내 주류 측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 재보선 원패 가능성=정 전 장관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면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원패

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전주 덕진에서 정 전 장관을 꺾을 만한 카드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전주 덕진의 정동영 바탕은 전주 완산 갑에서 무소속 바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 완산 갑에 공천을 신청한 한광옥 전 대표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민주당은 전북에서도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인천 부평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현재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주 덕진 공천 문제 등으로 내부 갈등이 고조, 적전분열을 계속된다면 원회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는 4·29 재보선 완패로 이어지며 민주당은 심각한 내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여론조사 경선의 고비를 넘을 수 있을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9 재보선 대상인 전주 완산갑에 대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식위는 25일 전주 완산갑에 공모를 신청한 후보 11명을 상대로 여론 조사에 착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주말까지 1차로 4~5명의 후보군을 압축한 뒤 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진행,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차 후보군 압축은 여론조사를 수

'올드보이' 무소속 배수진

민주, 한광옥 공천도 딜레마

치화한 당선 가능성이 30%를 비롯, 정체성과 당 기여도 10%씩, 도덕성과 이정활동 능력 15%씩의 배점으로 이루어진다. 공심위는 당초 비례·부정 관련 인사는 공천심사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적 기준을 세웠지만 지난해 총선 때처럼 '일괄적 원천배제' 조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해 일단 한 전 대표에게도 심사자격이 부여된 상태다.

당 안팎에서는 한 전 대표의 1차 관문 통과가 쉽지 만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공천'을 전면에 내세워 당 지도부가 정동영 전 장관에 대한 전주 덕진 공천 배제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드보이' 논란을 빚고 있는 한 전 대표에게 공천을 줄 경우 적지 않은 후폭풍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정우 기자 jkpark@kwangju.co.kr

전의경 및 경찰행정학과 특채/남·여 순경 공채

수시 접수 중 (종합 및 문제풀이)

경찰

전국
최강의 교수진
합격 보장! 전문 시스템
원장 안명섭

※ 합격 시스템

6개월 과정	1년 과정
• 2개월 원성 3회 번복 학습	• 2개월 원성 6회 번복 학습
• 영어 기본이 된 수강생 한함	• 영어 기본이 안된 수강생 한함
• 수강료 교재 25% D/C	• 수강료 50% D/C 교재 25% D/C

* 종합 1개월 : 16만원 · 문제풀이 1개월 : 13만원 · 단과 : 9만원

경찰 메가경찰학원 전남여고 후문 학원가

www.gmega.co.kr
☎ 226-5050

= 48년의 전통! 오랜 경험의 힘으로 헤아릴 수 없는 값진 보물이다!! =

7·9급 공무원 전직렬

을 적중문제풀이 1주

해교서 관감법 검증마 청교 보보간 복소기

정행무 세사원 활약 총정호 진호지 방술

시험일정 및 채용인원

- 인원 (국가직 9급 2520명, 7급 600여명 공채)

- 시험일: 7월 5일 9급 2520명, 7월 6일 7급 600여명

- 시험일: 7월 5일 9급 2520명, 7월 6일 7급 600여명

- 무등은 옛 명성 그대로 강의 第一! 합격 "最多" 란 말을 듣고 있습니다!! =

부 대 시 설

- 대체로 1000석 - 구조식

- 대체로 1000석 - 대체로 1000석

- 대체로 1000석 - 대체로 1000석

- 대체로 1000석 - 대체로 1000석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 222-4560

현역 출소환 본격화… 정치권 초기장

檢 박연차씨에 거액 받은 혐의 주내 2~3명 조사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치권 로비설을 수사하기 위해

금주 중 현역의원 2~3명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박연차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여의도 정부가 바짝 얼어붙고 있다. 검찰이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 때문에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수사를 일耽락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남은 1주일여 동안 그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004~2008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식당을 통해 금품을 전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004~2008년 미국 뉴욕 맨해튼

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인을 통

해 수차례 수만 달러를 전달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2

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광재 의원 역시 이 식당을 통해 금품을 전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회장에게서 선거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제기된 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과 권경석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갑원 의원은 "박 회장과 사적으로 만난 것은 한 차례에 불과하다"며 "합법적인 후원금 500만원 외에는 미국에서 단돈 1달러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허 최고위원 측은 "허 최고위원 본인이나 사무실 어느 곳도 검찰로부터 소환 통보는 물론 사실관계를 묻는 질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은 "오늘 오전 흥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이 통화에서 '조

사한 바도 없고, 소환할 계획도 없다'고 하더라"며 "의혹 규명 차원에서 하루빨리 검찰에 출두, 진실을 규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연차 리스트' 수사가 활기를 띠면서 4·29 재보선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향후 정치권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흥만표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중진 연설회의에서 "대한민국에서 부패스캔들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부패스캔들로 성역 없이 깔끔히 처리해줘야 이 정부의 도덕성이 살아나고 정권이 반석에 오른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표적사정이고 편파수사로, 여당이 4·29 재보선에 악용하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며 "검찰이 한나라당 선거전략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연차씨 국내외 안가리고 '돈 살포'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이 '큰 손'

답게 국내외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가리고 정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태광실업의 해외

공장이 있는 베트남과 중국으로

금을 조성해 사업 확장 비용으로 쓴 것은 물론 국내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협력업체인 태광비나 등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박 회장은 홍콩 협력법인 APC에서 차명으로 배당받은 685억원 이외에 해외 협력법인에서도 비자금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양형일 전 의원 광주시장 출마 시사

○…양형일(사진) 전 국회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양 전 의원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조만간 학자·정치인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겠다"며 "최근 지역민들과 지인들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있는데 정치권에 복귀하라는 권유를 많이 받고 있다"고 광주시장 출마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양 전 의원은 최근 행보에 대해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을 자주 만난다"고 소개하고 "정 장관이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 선대위원장으로 맡는 등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다"며 정치적 신의를 중시했다.

양 전 의원은 옛 남도청 별관 철거 문제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사가 조속히 재개되는 것"이라며 "문화전당은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확정됐는데 존중해야 한다. 또 무조건 보존하는 것만이 5·18을 기리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우회적으로 철거 입장을 밝혔다.

사회복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해야

○…광주시 북구의회 고재을 부의장은 지난 24일 제16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조금 횡령 등 사회복지자 공무원들의 각종 비리 사건은 행정직과의 차별에서 기인하고 있다"며 "사회복지 공무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력 충원을 통한 업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부의장은 "북구청도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실시해 교차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우기자 jwpark@kwangju.co.kr